



“무단횡단 아닙니다” 24일 오전 광주시 서구 농성동에서 한 시민이 우산을 받쳐든 채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 기록적인 폭설과 한파로 인해 대다수 시민들이 야외 활동을 자제하면서 광주 도심은 한산한 모습을 보였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광주시 어린이집 누리예산 한달치 긴급편성

### 광주시의회 유치원 118억·어린이집 60억 처리 여부 관심 장휘국 교육감 신년 기자회견담회에서 입장 밝힐 듯

광주시에 유치원·어린이집 누리과정 (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미편성으로 ‘보육대란’ 우려가 현실화된 상황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중 1개월치를 긴급 편성하기로 했다. 광주시의회도 애초 어린이집 예산과 형 평성을 맞추다며 전액 삭감했던 기존 방침을 번복, 시교육청에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을 일부 편성해달라고 요청해 최악의 보육대란 사태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광주시는 25일 시의회 교육위원회 의원들을 상대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긴급 편성에 대해 설명을 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광주시의회 교육위는 이날 의원 간담회를 열어 수용 여부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정부의 누리과정 예산 분담 불가에 반발, 올 예산안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670억)을 편성하지 않았다. 광주시는 이같은 점을 감안, 어린이집 누리과정 1월분, 60억원 상당을 긴급 편성

해 26일 열리는 제 246회 임시회 때 ‘원포인트’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의회 의결을 거쳐 최대한 빠른 시일안에 각 자치구를 통해 보육료(1인당 월 29만원 상당)를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광주시는 지난해에도 시교육청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에 따라 우선 지급 한뒤 나중에 정산했다.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지원 여부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전망이 나온다. 조영표 광주시의회 의장은 지난 21일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에게 긴급 추경안을 편성, 보육 대란을 막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조 의장은 유치원 누리과정 지원이 끊

기면서 유치원 운영 및 교사 임금 체불 사태가 빚어질 우려가 커 대란을 막자는 취지로 2개월치 유치원 예산 118억원 상당의 긴급 예산 편성을 요청했다. 시교육청도 당시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서는 책임지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갖고 있는 만큼 조만간 유치원 예산 지원이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교육계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한편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25일 열리는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같은 입장을 밝힐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현배기자 cki@kwangju.co.kr /김지욱기자 dok2000@kwangju.co.kr

## 오늘의 날씨

해돋이 07:37 해질 17:53  
일출 19:11 일몰 08:01



한파 주의보  
눈이 오다가 오후에 그치겠다.

◇지역별 날씨 (°C)

광주	눈온뒤겍 -10/-2	보성	눈온뒤겍 -8/-2
목포	눈온뒤겍 -5/1	순천	눈온뒤겍 -7/1
여수	구름많음 -6/1	영광	눈온뒤겍 -11/-3
나주	눈온뒤겍 -10/-1	진도	눈온뒤겍 -4/1
완도	눈온뒤겍 -5/1	전주	눈온뒤겍 -12/2
구례	눈온뒤겍 -9/-2	군산	눈온뒤겍 -10/-3
강진	눈온뒤겍 -6/1	남원	눈온뒤겍 -12/-3
해남	눈온뒤겍 -6/1	홍산도	눈온뒤겍 -2/1
장성	눈온뒤겍 -10/-2		

◇바다 날씨

방향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북서~북	2.0~4.0	서~북서	1.0~3.0
남부	북서~북	3.0~5.0	서~북서	2.0~4.0
남해	서~북서	2.0~3.0	서~북서	1.0~2.0
서부	서~북서(동)	2.0~4.0	서~북서	2.0~4.0
남부(서)	서~북서	2.0~4.0	서~북서	1.0~3.0

◇생활지수

체감온도	주의
동파	높음
뇌출중	매우높음

◇물때

목표	밀물	썰물
	02:44	08:05
여수	15:27	20:38
	10:10	03:41
	22:18	16:10

◇주간 날씨

날짜	26(화)	27(수)	28(목)	29(금)	30(토)	31(일)	2/1(월)
날씨	☀	☀	☁	☁	☀	☀	☀
기온	-5/4	-3/5	-1/7	2/7	2/7	1/8	0/7

## 순천 낙안읍성 화재...큰 피해 없어

사적인 순천 낙안읍성에서 화재가 발생했지만 다행히 초기 진화돼 큰 피해로 연결되지 않았다. 지난 22일 밤 8시에 순천시 낙안읍성 민속촌 내 조가집 식당 주변 담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불길은 담벼락 상단에 장식된 짚다발을 타고 번졌지만 주택으로 옮겨붙기 전 출동한 소방관에 의해 불이 난지 10분여 만에 진화됐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불이 시작된 담

벼락 아래는 화목 보일러에서 타고 남은 재들을 버리는 곳으로 이날 누군가 불씨를 제대로 끄지 않고 버린 재가 옮겨붙은 것이 화근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낙안읍성은 조선 읍성 중 형태가 가장 온전히 보존된 곳 중 하나로 사적 제302호로 지정됐으며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에도 등재돼 있다. 100여 가구가 읍성 안 전통가옥에서 살고 있다. /순천=김은중기자 ejkim@

## 교육부, 전교조 전임자에 복귀명령...갈등 예고

### 법외노조 판결 후속 조치 시행 방침

교육부가 ‘전교조는 법외노조’라는 법원의 항소심 판결에 따른 후속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히면서 갈등이 예고되고 있다. 교육부는 광주·전남 교육청을 비롯,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을 통해 노조 전임자에 대한 휴직 허가를 취소하고 전교조 사무실에 대한 지원금을 회수하는 등 조치를 시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전교조와 시민단체 등은 반발하고 있어 충돌이 우려되고 있다. 24일 광주·전남 교육청에 따르면 교육

부는 지난 22일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 취소소송 항소심 판결과 관련, 노조 전임자(83명)에 대한 휴직 허가 취소 및 복직 명령 ▲전교조에 지원한 사무실에서의 퇴거 조치와 사무실 지원금 회수 ▲전교조와 진행 중인 단체교섭 중지 및 기체결된 단체협약 효력 상실 통보 등의 시행을 요구하기로 했다. 전남도교육청의 경우 지난 18일 전교조 전남지부와 407개 항의 ‘2016 단체협약’을 체결한 바 있고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되더라도 교원단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기에 지금까지 존중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만큼 향후 대응 방침이 주목된다. 전교조 광주지부도 성명을 내고 “국제노동기구를 비롯한 국제적 권고와 기준을 무시한 판결”이라며 “법외노조가 되고 학교 혁신을 주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 광주본부도 논평을 통해 교육부의 조치가 이뤄지면 즉각 대응 투쟁에 나설 것임을 경고하고 있어 교육부와 갈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김지욱기자 dok2000@kwangju.co.kr

### 유치원비 1% 이상 못올린다

오는 3월부터 각 유치원은 원비를 전년 대비 1% 이상 올릴 수 없게 된다. 교육부는 유치원비 인상을 상한제를 올해 신학기부터 적용하기로 하고 이같은 내용을 각 유치원에 전달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유치원장이 원비를 인상할 때 직전 3개 연도의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결정하도록 한 유아교육법 개정안이 지난해 3월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 교육부는 2016학년도가 끝나는 내년 2월에 유치원들의 올해 학비 인상을 점검해 상한선을 위반한 유치원에는 보조금 전액 환수와 유아모집 정지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 딸 8년간 성폭행 아버지 징역 10년

광주교법, 항소심도 중형  
어린 딸을 8년간 성폭행한 인면수심 아버지에게 항소심도 중형을 선고했다. 광주교법 형사1부(부장판사 서경환)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인 딸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피해 사실을 진술하고, 그 진술 내용에도 불합리하거나

모순된 점이 없다”며 김씨의 범행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부인이 이혼 소송 중 유리한 결론을 이끌어내기 위해 고소하는 등 이 사건에 적극 관여했다고 주장하지만, 오히려 부인이 고소를 주저하고 보복이 두려워 딸에게 고소를 취소하거나 축소하도록 권유했다”며 성폭행 피해가 있었다고 봤다. 김씨는 2004년 당시 8세인 친딸을 성폭행한 것을 비롯해 2012년까지 자신의 집에서 수차례 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2016학년도 광신대학교 학부 / 대학원 신·편입생 추가모집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증명하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 학부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계열	모집학과	모집인원
인문	신학과	○
	국제한국어교원학과	○
사회	사회복지상담학과	○○
사범	유아교육과	○
예능	음악학과	○
	실용음악학과	○

\* 신학과는 군중사관후보생(군종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 국제한국어교원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을 취득할 수 있음.  
\* 사회복지상담학과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전형일정  
• 원서접수 : 2016. 2. 18(목) ~ 22(월)  
• 전형일 : 2016. 2. 23(화) 오전 10시

### 편입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계열	모집학과	모집인원		
		정원내	정원외	비고
인문	신학과	5	1	유치원교사 양성 관련학과 전문학사학위 소지자 편입학(3학년)
	국제한국어교원학과	1		
사회	사회복지상담학과	3	1	
사범	유아교육과	4		2
예능	음악학과	7		
	실용음악학과	4		

\* 음악학과 전공 ▶ 피아노, 성악, 관·현악(타악, 클래식기타 포함), 오르간, 작곡, 교회음악  
\* 실용음악학과 전공 ▶ 드럼, 기타, 재즈피아노, 보컬, 베이스, 색소폰, 작곡, 미디(레코딩), 싱어송라이터 등

▶전형일정  
• 원서접수 : 2016. 1. 11(월) ~ 1. 25(월)  
• 전형일 : 2016. 1. 28(목) 오전 10시

### 대학원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 전형일정

• 원서접수 : 2016. 2. 1(월) ~ 16(화)  
• 전형일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대학원	과정	모집학과	모집인원	전형일시
일반대학원	박사	신학과(Ph.D.)	○	2016. 2. 19(금) 오전 10시
		목회학과(D.Min.)	○	
		신학과(Th.M.)	○	
신학대학원	석사	유아교육학과(M.Ed.)	○	2016. 2. 19(금)오후 3시
		신학과(M.Div.)	○○	
상담치료대학원	석사	통합예술치료학과(M.A.)	○	2016. 2. 19(금)오전 10시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사회복지학과(M.S.W.)	○	2016. 2. 19(금) 오후 3시
		평생교육학과(M.Ed.)	○	
국제대학원	석사	한국어교원학과(M.A.)	○○	
		음악학과(M.A.)	○	
음악대학원	석사	실용음악학과(M.A.)	○	

▶신학대학원 편입

▶지원자격 및 모집인원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신학 관련 대학원에서 2학기 이상 수료한 자로 아래 세부 지원 자격에 해당하는 자 (단, 본교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신학연구(학)과(M.A.T.) 재학, 수료, 졸업자 포함)

모집학년	모집인원	지원자격
2학년	○명(주·야)	2학기 이상 수료
3학년	○명(주·야)	4학기 이상 수료

▶전형일정  
• 원서접수 : 2016. 2. 1(월) ~ 16(화)  
\* 서류심사 관계로 제출서류는 기간 내에 등기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해야 한다.  
• 전형일 : 2016. 2. 19(금) 오전 10시

믿음이 있는 대학 · 믿음을 주는 대학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1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역지사로 36